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행동문제*

Effects of Stress Coping Behaviors on Social Adjustments and Problem Behaviors in Childhood*

인하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 현온강

대학원 이현정

Dept. of Consumer, Child, and Family Studies, Inha University

Prof. : Hyun, On Kang

Graduate School : Lee, Hyun J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stress coping behavior and social adjustments in late childhood. Total 657 teenagers (238 ten-year-olds, 230 twelve-year-olds, and 189 fourteen-year-olds) and their parents living in Incheon a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Each child was evaluated whether they cope either (a) defensively or (b) actively in several stressful domains by completing the Stress Coping Rating Scales (Korean). Their social adjustments were measured in areas like peer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hip, and conformity with Social Adjustment Scales (Korean). The final examination scores were used to rate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s. Finally Korean version of Achenbach's Child Behavior Check List were completed by parents.

As results, girls were found to use more defensive strategies to cope stress, showed more conformity and withdrawn behaviors and achieved higher scores academically than boys. Generally younger children tended to adjust better socially than older children. As children grew older they used more and more defensive strategies to cope with everyday stress. Also older children showed more withdrawn behavior and aggressive behavior than younger children. As anticipated children who used more defensive coping strategies were reported to have more behavior problems, showed poorer social adjustments and academic achievements. Children who used more active coping strategies, on the other hands, were reported to have less behavior

* 본 연구는 1998년 인하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problems, adjusted better socially and had better academic achievements. Finally children who adjusted better socially and had high academic achievements were reported to have less behavior problems.

I. 서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는 대체로 중년기에 겪는 현상쯤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관점이 보편화되고 있다. 사실상 스트레스로부터의 완전한 도피는 죽음뿐이므로, 스트레스 연구의 주안점은 스트레스의 경험여부보다는 경험되는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밝히는데 있다(이소은, 1990). 하지만 최근 들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주제로 한 연구(박선영, 1993; 윤재은, 1994; 이해옥, 1994; 정문자·정현숙, 1994)는 많이 행해졌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이소은, 1990; 송의열, 1995)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는 특히 급속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으로 인한 많은 심리적 갈등과 적응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기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중기에서 청소년기로의 과도기는 자기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기가 속한 문화 속에서 견디어내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개념을 발달시키게 되며, 부모로부터 점점 더 독립적으로 되고 다른 아동들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가치나 태도를 인식하여 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가족적인 변화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Papalia, 1991). 따라서 아동도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에 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아동중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제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수용되어 왔던 이론은 '대처방식모델(Folkman & Lazarus, 1980)'로, 기능에 따른 대처행동의 구체적인 구별을 가능케 해주므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들이 사용하는 대처방식의 양상을 분석하는데 적용될 수는 있으나 이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아동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성인과 아동이 많은 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직까지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척도 이외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가 개발되지 못한 실정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아동이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며 대처하는지를 제시하여 주기에는 아직 주관적인 개념의 틀만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아동이 이러한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대해 어떠한 대처행동을 보이는지에 따른 적응과 행동문제의 양상을 알아본 연구(박선영, 1993; 윤재은, 1994)도 역시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적응과 행동문제에 대한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관련된 것이 아닌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이평숙·임현빈, 1980; 강성희, 1991; 안경숙, 1993; 오명희, 1994; 류근유, 1995)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해도 비교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통제할 수 없거나 다루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신체적 증상이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는다(박선영, 1993)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대해 어떠한 대처행동을 보이는지의 개념을 포함하여야 적응과 행동문제와의 관계가 보다 잘 이해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사회적 적응과 행동문제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성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사회적 적응은 성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행동문제는 성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

- 이가 있는가?
4.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5.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6.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행동문제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

1960년대 이후 스트레스 자체가 부적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에 매개되어 개인의 적응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대처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즉,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성공적이면 스트레스가 완화되어 없어질 수도 있고 실패하면 좌절이나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대처유형에 대한 것으로는, Folkman과 Lazarus(1980)는 환경의 변화를 시도하고 상황의 호전을 위해 노력하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기나 사회적 기능을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으려 하는 정서집중적 대처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Coyne, Aldwin, & Lazarus(1981)는 문제집중대처, 소망적 사고, 도움추구나 회피, 성장지향, 공포감 감소, 정서적 지지추구, 자기비난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그 기능에 따라 크게 문제지향적 대처와 정서지향적 대처로 구분한 후, 특히 정서지향적 대처를 여러 하위범주로 구분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연구 대상을 성인으로 국한하여 왔으나, 아동 또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 상황과 지각정도 그리고 대처방식은 성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아동들은 아직 발달단계에 머물러 있고 많은 면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통해서 변화와 함께 수반되는 혼란과 고통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대처해 나가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기존의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아동들이 직면한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대부분 어른들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점과, 그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그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Medeiro, Babara, & Welch, 1983)는 점이 고려되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대처행동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어졌지만, 현재까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홍원희, 1992; 윤재은, 1994; 이해욱, 1994; 정문자·정현숙, 1994; 황천근, 199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경구·김교현, 1992; 박선영, 1993),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정혜, 1990) 들만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선행연구 중에서 각자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여온 연구자로는, Band와 Weisz(1988)가 면접법을 사용하여 구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아동의 대처를 분석한 결과, 보다 통제가 가능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문제지향적 성격을 띠는 1차적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통제가 어려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정서지향적 대처의 성격을 갖는 2차적 대처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소은(1990)은 자기보고식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여, 문제지향적 대처와 정서지향적 대처로 대처방식을 분류하였다.

Ryan-Wenger(1992)는 공격적 활동, 행동적 회피, 행동적 기분전환, 인지적 회피, 인지적 방심, 인지적 문제해결, 인지적 재구조화, 감정표현, 인내, 정보추구, 독립활동, 자아통제활동, 사회적 지지, 영적 지지, 스트레스요인 수정의 15가지 아동대처범주를 제시하였는데, 송의열(1995)은 Ryan-Wenger(1992)가 제시한 이 15개의 아동 스트레스 대처 범주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다시 2차에 걸친 탐색타당화 과정을 거쳐 학업문제, 또래문제, 가정문제, 자존심 문제의 4가지 일상생활 스트레스 영역에 따라 회피,

문제중심, 감정표현, 자기고립, 거리두기, 소망적 사고, 지지추구, 무시, 자기위안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왔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의 대처와 정서적으로 통제하려는 방식의 대처가 하위범주로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연구되어져왔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사회적 적응

지난 20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의 이혼, 집안식구의 죽음, 빈곤 등과 같이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 어린 아동과 부적응간의 명확한 관계를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Dubow & Tisak, 1989). 그러나 스트레스에 노출된 모든 아동의 전부가 심리적인 장애를 겪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스트레스 생활 사건과 부적응간의 상관은 대략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Cohen & Hoberman, 1983).

이것은 학교나 가정 등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적응을 중재하는 다른 변인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Compas(1987)는 스트레스에 대한 잠재적이고 방어적인 조절요인을 유아기의 애착과 분리, 사회적 지지, 대인간 인지적 문제 해결 기술, 성취내용에서의 대처, A유형과 B유형의 행동패턴, 우울과 민감성에 대한 대처방식,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등 7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중재 과정을 규명하려고 한 연구들(Cohen & Hoberman, 1983; Cohen & Wills, 1985; Baer, Garnezy, McLaughlin, Pokorny, & Wernick, 1987; Burt, Cohen, & Brock, 1988; Dubow & Tisak, 1989; Wills & Vaughan, 1989; Windle, 1992; 강성희·이재연, 1992)과,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과의 관계를 문제 해결 기술로써 중재 과정을 규명하려고 한 연구들(Richard & Dodge, 1982; Elias, Gara, Ubriaco,

Rothman, Clabby & Schuyler, 1986; 권영민, 1995)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인들은 아동의 적응에 있어 문제 해결 기술이나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중재하는데 어떤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아주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적응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 사이에는 대처라는 포괄적인 중재변인이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었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과의 관계를 대처의 중재 과정으로 규명하려고 한 연구들(Cohen & Lazarus, 1983; Crinic, Friedrich, & Greenberg, 1983; Compas, 1987; Winstead et al., 1992; 박선영, 1993; 윤재은, 1994)이 행해져 왔다.

3. 행동문제

아동기는 행동문제에 있어 표현과 증상이 청년기만큼 현저하지도 유아기만큼 급격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기 쉬워, 결국 청년기에 나타나는 행동문제는 사실상 아동기에 배양되고 있음에도 그 기초증상을 간과하여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아동기는 임상심리학적인 관점과 예방차원에서 볼 때 다른 어떤 발달단계에서의 행동문제보다도 더욱 관심이 모아져야 할 연구대상이다(한미현, 1996).

정보인(1992)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행위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동,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행위의 결핍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적합한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되는 아동이 어른의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더 문제아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나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위축된 아동의 경우에 관심과 자극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홍준표(1993)는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심각한 불안이나 공포반응과 도피 및 회피반응 등을 과잉반응이라 지칭하고 신속히 제거하여야 할 표적행동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유형의 행동들은 양적 측정 뿐 아니라 이를 자극하는 환경을 발견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행동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1980년 대까지의 주요 연구들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나 문제행동과의 상관연구, 그리고 더 나아가 스트레스 종류에 따른 심리적 증상이나 문제행동과의 상관연구가 핵심을 이루며 연구대상도 성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청소년, 아동, 영아에게까지 확대되었다(오명희, 1994). 또한 스트레스와 행동문제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Compas, Howell, Phares, Williams, & Guinta, 1989; Wills, 1990; 안경숙, 1993; 오명희, 1994; 한미현, 1996)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스트레스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행동문제가 많이 일어나며, 오히려 아동의 사소한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행동문제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 검사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또한 임상평가에 앞선 유용한 예비판별도구로 평가받고 있는 조사도구는 Achenbach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CBCL)로 Achenbach가 다시 자신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1991년도 판을 개발하였는데 4-18세 아동용 행동평가척도로 총 1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에게 나타나는 행동문제의 유형을 위축행동, 신체증상, 불안/우울,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정신분열증, 비행, 공격행동, 성문제 등 9가지로 분류하였고(한미현, 1996), 우리나라에서는 한미현·유안진(1995b)이 이 척도를 타당화 연구를 통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는데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중학교 2학년의 남녀아동 657명과 그들의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의 표집은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의 7개 구에서 1개 학

교씩을 유의표집 하고, 각 학교에서 2개 반씩을 선정하여 총 14개 반의 남녀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2. 조사도구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아동용 질문지와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는 부모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1)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Ryan-Wenger(1992)가 제시한 15개의 아동 스트레스 대처 범주를 근거로 송의열(1995)이 서울시·대전시·공주시의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차 탐색검사와 2차 탐색 검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제작한 아동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에서 학업문제 15문항, 또래문제 19문항, 가정문제 23문항을 추출하여 제작된 문항들을 토대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척도를 가지고 인천광역시 소재 7개 초·중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요인분석을 통해 각 일상 스트레스 영역별 대처행동의 하위요인들을 확정하고 확정된 요인에 대해 요인명명 한 이후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문항을 확정하였다.

일상생활 영역별 신뢰도는 학업문제($\alpha = .6505$), 또래문제($\alpha = .6307$), 가정문제($\alpha = .7578$)로 비교적 만족할 정도의 신뢰도 수준을 나타내었고, 타당도는 요인부하량이 .50이상인 문항만을 선택하였으며, Eigenvalue가 1.5미만이면서 제외했을 때 정보손실의 비율이 10%가 되지 않는 요인을 제외시켰다. 그 결과 57문항 중 36문항이 선정되었고, 영역마다 2개씩의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방어적 대처와 적극적 대처로 명명하였다(요인분석에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현정, 1997을 참고하기 바람).

2) 사회적 적응 척도

정원식·김호권(1992)의 '성격진단검사' 문항 중 척도별로 아동의 사회성에 관련된 총 60문항을 추

출하여 이수자(1993)가 작성한 '사회적 적응검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적응척도는 가족관계 15문항, 교우관계 15문항, 대응성 15문항, 적응성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 계수는 $\alpha = .8851$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행동문제 척도

Achenbach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한미현, 유안진(1995b)이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타당화 하여 개발한 아동행동문제척도를 사용하였다. 과잉행동 8문항, 불안행동 8문항, 위축행동 8문항, 공격행동 8문항, 미성숙행동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alpha = .8851$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t-test를,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원변량분석과 SMR(Scheffé's Multiple Range Test)검증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이외에 평균과 표준편차가 사용되었고, 아동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각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 등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 아동의 성별과 학년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유의표집 하였기 때문에, 남아가 50.7%, 여아가 49.3%로 분포되어 있으며, 학년에 따라서도 초등학교 4학년(10세)이 36.2%, 6학년(12세)이 35.0%, 중학교 2학년(14세)이 28.8%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2.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는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표 1>에서와 같이 여아가 남아보다 전체 스트레스와 가정문제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정도가 높았으나, 단 또래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간의 친밀한 관계와 방어적 측면을 중시하도록 강화를 받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더 민감하고 애착적(Perry & Bussey, 1984)이 되며, 결국 여아는 남아보다 친구관계에 더 높은 가치(한미현, 1996)를 두게 되어 또래문제에서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본다. 또한 청소년의 긴장에 대한 대처전략 연구(정문자·정현숙, 1994)에 의하면 여아가 남아보다 대처전략으로 친구의 도움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역시 여아가 또래문제를 중요시한다는 것이 지지되고 있는 결과이다.

학년에 따라서는 <표 2>에서와 같이 또래문제에 대한 방어적 대처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모두 전체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정도가 높고, 학년이 낮을수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고 원인을 회피하고자 하는 능력 또한 성숙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 영역	하위요인	남(N=333) M(SD)	여(N=324) M(SD)	t
전체 스트레스	방어적 대처	1.63(.48)	1.74(.52)	-2.81**
	적극적 대처	2.46(.51)	2.48(.55)	-.49
학업문제	방어적 대처	1.60(.63)	1.68(.62)	-1.40
	적극적 대처	2.37(.60)	2.40(.66)	-.63
또래문제	방어적 대처	1.55(.55)	1.62(.56)	-1.64
	적극적 대처	2.62(.71)	2.72(.69)	-1.96*
가정문제	방어적 대처	1.70(.63)	1.86(.71)	-3.05**
	적극적 대처	2.40(.64)	2.35(.66)	.98

* $p < .05$, ** $p < .01$

〈표 2〉 아동의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 영역	하위요인	초4(N=238) M(SD)	초6(N=230) M(SD)	중2(N=189) M(SD)	F
전체스트레스	방어적 대처	1.48(.39) a	1.70(.47) b	1.93(.57) c	49.40***
	적극적 대처	2.65(.54) a	2.46(.47) b	2.28(.52) c	27.61***
학업문제	방어적 대처	1.41(.45) a	1.64(.60) b	1.95(.73) c	43.92***
	적극적 대처	2.47(.66) a	2.36(.58) ab	2.30(.64) b	4.40*
또래문제	방어적 대처	1.53(.58)	1.57(.49)	1.66(.59)	2.90
	적극적 대처	2.82(.69) a	2.65(.68) b	2.50(.71) b	11.25***
가정문제	방어적 대처	1.49(.51) a	1.82(.66) b	2.10(.73) c	49.13***
	적극적 대처	2.60(.65) a	2.37(.57) b	2.09(.63) c	35.48***

*p<.05, ***p<.001

abc : Scheffé 검증으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이하생략).

3.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적응의 차이

〈표 3〉에서 사회적 적응 영역중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은 대응성과 현실적응성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이수자(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경우 규칙과 규율을 잘 준수하고 현실적인 권위와 규율의 타당성을 존중하여 정당한 태도로 적응해 가는 대응성에 있어서 남아보다는 여아가 성장하면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규범적인 성향을 더 요구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적응/학업성취

사회적 적응 영역	남(N=333) M (SD)	여(N=324) M (SD)	t
전체사회적 적응	.59(.14)	.60(.15)	-.35
교우관계 적응	.47(.19)	.47(.22)	.37
가족관계 적응	.71(.20)	.71(.22)	.12
대응성	.61(.17)	.64(.16)	-2.00*
현실적응성	.58(.19)	.58(.19)	.12

*p<.05, ***p<.001

또한 〈표 4〉에서와 같이 가족관계 적응, 대응성, 현실적응성 등 전체적으로 저학년으로 갈수록 적응 점수가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김진희(1989), 이금(1993)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해 갖는 교육적인 관심, 성취기대 등의 성취압력이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고학년으로 갈수록 부모나 교사의 성취압력이 심해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빈번해지며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4〉 아동의 학년에 따른 사회적 적응/학업성취

사회적 적응 영역	초4(N=238) M (SD)	초6(N=230) M (SD)	중2(N=189) M (SD)	F
전체사회적 적응	.64(.14) a	.58(.14) b	.56(.14) b	21.36***
교우관계 적응	.48(.20)	.46(.20)	.47(.21)	.91
가족관계 적응	.78(.13) a	.69(.21) b	.64(.22) b	25.06***
대응성	.66(.15) a	.60(.16) b	.60(.17) b	9.36***
현실적응성	.64(.19) a	.55(.18) b	.52(.19) b	26.04***

*** p<.001

4.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의 차이

〈표 5〉에서 행동문제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과잉행동과 위축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명희(1994), 한미현(1996)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행동문제의 특성상 위축행동은 여아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행동문제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표 6〉에서와 같이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과 같은 행동문제가 전체적으로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체감 위기”라는 계속되는 도전 속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체감 위기를 해결하게 되는 부정적 정체감이 생겨 범죄, 비행, 반사회적 집단, 불량집단, 반사회적 영웅들과 동일시함으로써 반사회적인 부적응 행동을 발달시키게 될 가능성이 큰 시기(김광일, 1992)이므로 위축행동과 공격행동

이 청소년기로 오면서 증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표 7〉에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거의 모든 영역의 방어적 대처에 대해서는 부적 상관을, 적극적 대처에 대해서는 모두 정적 상관을 보여, 아동이 스트레스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중심적 대처집단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문제상황에 대해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문제해결을 위해 주위의 적극적인 도움이나 정보를 제공받으려하는 것 보다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취함으로써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박선영(1993)의 보고와 일치하고 있는데,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의 특성이 적극적 대처행동의 특성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이는 적극적 대처행동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6.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제시한 〈표 8〉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인 영역들이 공통적으로 방어적 대처와 행동문제는 모

〈표 5〉 아동의 성별에 따른 행동문제

행동문제 영역	남(N=307) M(SD)	여(N=319) M(SD)	t
전체행동문제	1.47(.27)	1.51(.27)	-1.68
과잉행동	1.59(.41)	1.68(.43)	-2.69**
불안행동	1.60(.41)	1.65(.38)	-1.59
위축행동	1.34(.38)	1.40(.36)	-2.50*
공격행동	1.30(.31)	1.28(.31)	.85
미성숙행동	1.53(.37)	1.53(.37)	.13

* p<.05, ** p<.01

〈표 6〉 아동의 학년에 따른 행동문제

행동문제 영역	초4(N=234) M (SD)	초6(N=214) M (SD)	중2(N=178) M (SD)	F
전체행동문제	1.45(.23) a	1.53(.28) b	1.50(.29) ab	5.30**
과잉행동	1.62(.38)	1.69(.45)	1.59(.43)	3.00
불안행동	1.57(.37)	1.66(.41)	1.65(.40)	3.13*
위축행동	1.29(.30) a	1.38(.36) b	1.46(.36) b	11.97***
공격행동	1.23(.25) a	1.33(.30) b	1.31(.37) b	6.65**
미성숙행동	1.52(.34)	1.58(.38)	1.50(.38)	2.46

*p<.05, **p<.01, ***p<.001

<표 7>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N=657)

		교우관계 적응	가족관계 적응	대응성	현실적응성	전체사회적 적응
학업문제	방어적 대처	-.0698	-.4821***	-.4659***	-.5239***	-.5118***
	적극적 대처	.2359***	.1985***	.2132***	.1665***	.2759***
또래문제	방어적 대처	-.1328***	-.1603***	-.2002***	-.2727***	-.2562***
	적극적 대처	.1945***	.1091**	.1663***	.1608***	.2126***
가족문제	방어적 대처	-.0551	-.5764***	-.5111***	-.5168***	-.5516
	적극적 대처	.1821***	.3355***	.2703***	.2579***	.3535***
전체스트레스	방어적 대처	-.0975*	-.5596***	-.5271***	-.5726***	-.5842***
	적극적 대처	.2458***	.2818***	.2754***	.2540***	.3573***

*p<.05, **p<.01, ***p<.001

<표 8>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N=626)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전체행동문제
학업문제	방어적 대처	.1529***	.1352***	.1827***	.2521***	.1175**	.2234***
	적극적 대처	.0278	.0439	-.0713	-.0136	-.0057	-.0018
또래문제	방어적 대처	.0511	.0775	.1006*	.1026*	.0160	.0928
	적극적 대처	.0504	.0552	-.0371	.0068	.0113	.0238
가족문제	방어적 대처	.2272***	.1261**	.2112***	.3081***	.1507***	.2733***
	적극적 대처	.0344	-.0070	-.0923*	-.0597	.0261	-.0217
전체스트레스	방어적 대처	.2040***	.1458***	.2200***	.3023***	.1353***	.2586***
	적극적 대처	.0480	.0319	-.0849*	-.0388	.0175	-.0018

*p<.05, **p<.01, ***p<.001

두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적극적 대처와 행동문제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려는 노력인 방어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아동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회피한다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되고자 하는 고립활동을 한다거나,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하는 행동이 빈번하므로 그에 따라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은 아동이 자신의 가족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교우관계에 있어서 비사교적인 경우 편견과 적대감이 생기며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되며,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부적응적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7.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표 9>에서 사회적 적응과 행동문제는 전체적으로 모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행동문제간에 부적 상관을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이 스트레스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적

〈표 9〉 아동의 사회적 적응/학업성취와 행동문제의 관계

(N=626)

	교우관계	가족관계	대응성	현실적응성	전체사회적 적응
과잉행동	.0750	-.1633***	-.1570***	-.1225**	-.1182**
불안행동	-.1910***	-.0731	-.0932*	-.1721***	-.1807***
위축행동	-.2279***	-.1904***	-.1580***	-.2751***	-.2900***
공격행동	-.0552	-.2618***	-.2397***	-.1668***	-.2402***
미성숙행동	-.1028*	-.1613***	-.2021***	-.1287***	-.1974***
전체 행동문제	-.1319***	-.2249***	-.2253***	-.2312***	-.2721***

*p<.05, **p<.01, ***p<.001

응이 낮고 행동문제는 많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적응이 높고 행동문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대처행동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부모와 교사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하고 유효성 있는 대처방식을 발달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기존의 적응과 행동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관련된 것이 아닌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로, 스트레스에 대해 어떠한 대처행동을 보이는지에 따른 적응과 행동문제의 양상을 알아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연구대상도 청소년이나 성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사회적 적응과 행동문제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제시하였다.

둘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하여 명확히 연구할 수 있는 정련화 된 척도가 없는 실정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이나 성인의 척도를 아동에게 맞도록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왔다. 본 연구는 Ryan-Wenger(1992)가 제시한 15개의 아동 스트레스 대처범주를 근거로 송의열(1995)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작된 척도를 다시 한번 요인분석 함으로써 정

련화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아동의 적응양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에게는 자신의 사회적 적응을, 부모에게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측정척도를 다양화하여 연구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행동문제에 대하여 응답할 경우의 편견개입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이나 사회적 적응,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의 성과 연령만을 살펴보았는데 개인이 성격,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 사회적 계층, 생활사건의 종류 등의 여러 변인들에 대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변인과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하여 아동에게는 사회적 적응을, 부모에게는 행동문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현 우리나라 교육여건 상 교사 대 학생 비율이 너무 커서 어렵겠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에게는 아동이 가정에서 보이는 행동문제를 체크하게 하고 교사에게는 아동이 학교에서 보이는 행동문제를 체크하게 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연구를 하였으므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나 사회적 적응 및 행동문제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고 평가하는데

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적응도가 낮은 아동이나 행동문제가 많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처행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클 수도 있다. 또한 저학년의 아동이 고학년 아동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하며 사회적 적응은 높고 반대로 행동문제는 적다는 결과에 있어서도 횡단연구의 한계점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결과를 규명할 것이 요구되므로, 종단연구를 통하여 연령에 따라 아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 참고문헌

- 1) 강성희(1991).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의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강성희, 이재연(1992).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기술 스트레스 완충효과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13(2), 175-188.
- 3) 권영민(1995). 대인간 인지적 문제해결훈련이 아동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광일(1992). 청소년의 적응과 심리적 환경.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강연집.
- 5)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류근유(1995). 성격유형과 스트레스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박선영(1993).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지적 평가와 대처행동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송의열(1995).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 행동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안경숙(1993). 아동의 스트레스와 행동문제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오명희(1994). 국민학교 1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 행동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11) 윤재은(1994). 영재집단의 학교생활 적응과 스트레스 및 대처방법: 특수고교와 인문고교의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이금(1993).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이소은(1990).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대처방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이수자(1993). 성격의 행동특성·사회적 적응·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평숙, 임현빈(1980). 스트레스 사건이 적응행동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10, 57-63.
- 16) 이현정(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학업성취 및 행동문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이해옥(1994).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전경구, 김교현(199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 경험 분석. 한국심리학회 '92 연차 대회 학술논문집, 413-461.
- 19) 정문자, 정현숙(1994). 청소년의 긴장에 대한 대처전략과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15(2), 3-19.
- 20) 정보인(1992). 행동수정을 통한 어린이 문제행동 지도-일반어린이와 장애어린이-. 중앙적성출판사.
- 21) 정원식, 김호권(1992). 성격진단검사. 코리아테스팅센터.
- 22) 최정혜(1990).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 변인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19-133.
- 23)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4) 한미현, 유안진(1995b). 아동행동평가척도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25) 홍원희(1992). 성격특성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26) 홍준표(1993). 행동적 접근 지도 방법. 특수교육학회지, 14(1), 121-131.
- 27) 황천근(1994). 고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Baer, P. E., Garnezy, L. B., McLaughlin, R. J., Pokorny, A. D. & Wernick, M. J.(1987). Stress, coping, family conflict, and adolescent alcohol use. *J. of Behavior Medicine*, 10, 449-466.
- 29) Band, E.B., & Weisz, J. R.(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 30) Burt, C. E., Cohen, L.H., & Brock, J. P.(1988). Perceived family environment as a moderator of young adolescents' life stress adjustment. *American J. of Community Psychology*, 16, 101-122.
- 31) Cohen, F., & Lazarus, R. S.(1983). Coping and adaptation in health and illness. in D. Meadhanic(ED.), *Handbook of Health, Health Care, and the Health Professinns*. N.Y. : Basic Books Inc, 608-635.
- 32)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 of Applied Psychology*, 13, 99-125.
- 33)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34) Coyne, J. C., Aldwin, C., & Lazarus, R. S.(1981). Depression and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 of Abnormal Psychology*, 90, 439-477.
- 35) Compas, B. E.(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36) Compas, B. E., Howell, D. C., Phares, V., Williams, R. A., & Guinta, C.T.(1989). Risk factors for emotional/behavior problem in young adolescents : A positive analysis of adolescent and parental stress and symptom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732-740.
- 37) Crinic, K. A., Friedrich, W. N., & Greenberg, M. T.(1983). Adaptation of families with mentally retard children: A model of stress, coping and family ecology. *American J. of Mental Deficiency*, 88, 125-138.
- 38) Dubow, E. F.,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39) Elias, M. J., Gara, M., Ubriaco, M., Rothman, P. A., Clabby, J. F., & Schuyler, T.(1986). Impact of a preventive social problem solving intervention on Children's coping with middle-school stressors. *American J. of Community Psychology*, 14, 259-276.
- 40) Folkman, S., & Lazarus, R. 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41) Medeiro, D. C., Babara, J. P. & I. D. Welch(1983). *Children under stres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42) Papalia, D. E.著. 박성연 譯(1991). *인간발달; 아동발달*, 서울 : 교육과학사.
- 43) Perry, D. G.,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NJ : Prentical Hall.
- 44) Richard, B. A. & Dodge, K. A.(1982). Social maladjustment and problem-solving in school-aged children.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2), 226-233.
- 45) Ryan-Wenger, N. M.(1992). A Taxonomy of children's coping strategies : A step toward theory development. *American J. Of Orthopsychiat* . 62(2) April, 256-263.
- 46) Wills, T. A., & Vaughan, R.(1989). Social support

- and substance use in early adolescence, *J. of Behavior Medicine*, 12, 321-339.
- 47) Wills, T. A.(1990). Stress and coping factors in the epidemiology of substance use. In L. T. Kozlowski, H. M. Annis, H. D. Cappell, F. B. Glaser, M. S. Goodstadt, Y. Isrel, H. Kalant, E. M. Sellers, & E. R. Virgilis(Eds.), *Research advances in alcohol and drug problems*, (vol 10, 215-250). N.Y. : Plenum Press.
- 48) Windle, M.(1992).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522-530.
- 49) Winstead, B. A., Derlega, V. A., Lewis, R. J., Sanchez-Hucles, J., Clark, E.(1992). Friendship, social interaction, and coping with stress. *Communication Research*, 19(2), 193-211.